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오늘 오전에 세미나 "미 대선과 한국 기업들 위한 시시점"이 있었습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전 세인트루이스 은행 총재, “올해 금리 3차례 인하”
- Bloomberg: State Street, “빠르면 6월에 0.5% 금리 하락”
- CNN Business: 무디스, “오일 가격이 미 경제 최대의 위협”

[미국 금융]

- WSJ: 원자재 랠리가 경제엔 좋지만 인플레이 리스크 유발
- CNN Business: JP 모건 CEO, “증권 시장 축소에 우려된다”
- WSJ: 금 선물가격, 신기록 경신

[인공지능]

- WSJ: Arm CEO, “AI의 에너지 충족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”

[에너지]

- CNBC: 유가 하락... 가자지구에 이스라엘 병력 감축 후에
- Bloomberg: 연준이 인플레이 둔화시켜도 전력 요금 올라간다

[기후 변화]

- WSJ: 바이든의 기후 변화 지원금 1조 달러 지출 불구, 유권자는 냉담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Bloomberg: Best Buy, AI 도구 활용해 고객 서비스 효율성 높인다
- WSJ: Google, 값비싼 AI 경쟁에서 자체 칩 개발 노력 확대

[보고서]

- 한국은행 뉴욕사무소: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(4월)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Bullard Says Three Fed Rate Cuts This Year Is ‘Base Case’ 전 세인트루이스 은행 총재, “올해 금리 3차례 인하”

- 세인트루이스 연방중앙은행 총재였던 James Bullard는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. 경제가 계속 견조한 상황에서 인플레이가 연준의 목표치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.
- 그는 “우리는 연준과 의장을 액면 그대로 신뢰해야 한다. 그들의 추측대로 올해 3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”고 말했다. 그는 연준이 견조한 경제를 이끄는 성공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State Street Sees Half-Point Fed Rate Cut as Soon as June State Street, “빠르면 6월에 0.5% 금리 하락”

- 3조 6천억 규모의 자산 운용사인 State Street의 글로벌 어드바이저들은 시장 컨센서스에서 매파적 입장과는 달리 연준이 빠르면 6월에 0.5%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.
-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말해 1.5%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. 이는 현재 시장 가격의 2.5배 수준이다.

Bloomberg 기사

CNN Business: Oil price surge is the No. 1 threat to the US economy, Moody's economist warns 무디스, “오일 가격이 미 경제 최대의 위협”

- 미 일자리가 견고하고 소지 지출도 강하다.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.
- 그러나 미 경제를 점차 크게 위협하고 있는 존재는 급등하는 오일가격이다. 미 오일 가격이 빠르게 올라 배럴당 90달러. 글로벌 오일 가격은 중동 사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배럴당 92달러를 기록하고 있다. 이에 따라 지난 5개월째 휘발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
- 오일 가격이 오르면 소비지출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가 쉽게 둔화되지 않는다.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늦출 수 있다.
- 무디스사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Mark Zandi는 미 경제에 빠르게 위협하는 존재는 높은 가격의 오일 가격이라고 말했다. 휘발유 가격이 높으면 미 대선에도 영향을 주어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. Mark Zandi는 “2, 3개월 이상 휘발유가 갤런당 4달러가 넘으면 트럼프가 이기게 된다”는 것이다.

CNN Business 기사

[미국 금융]

WSJ: Commodities Rally Reflects a Better Economy, but Also Poses Inflation Risks

원자재 랠리가 경제엔 좋지만 인플레이 리스크 유발

- 제조와 운송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경기 확장과 동시에 인플레이가 반등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.
-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지표인 S&P GSCI은 올해 12% 상승해 같은 기간 S&P 500의 9.1% 수익률보다 높았다. 구리와 오일은 각각 10%, 17% 상승했고 심지어 금도 기록적인 수치를 보여 13% 상승한 온스당 2천3백32불로 나타났다.

- 이같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다.

WSJ 기사

CNN Business: The stock market is shrinking and Jamie Dimon is worried

JP 모건 CEO, “증권 시장 축소에 우려된다”

- 미국의 상장 회사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. 상장회사는 피크였던 지난 1996년 7천3백개 였으나 이제는 4천3백개로 줄었다. 회사 숫자가 줄어들었다기 보다는 공개적인 감시를 피해 비상장 회사로 전환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.
- JP모건의 CEO인 Jamie Dimon은 “상장 회사의 숫자가 놀라울 정도로 늘어나야 하는데 줄고 있다”고 우려했다.
- 이처럼 비상장회사로 전화되는 이유는 상장회사에 대한 강화된 보고 의무, 비싼 소송 비용, 위압적인 이사회 지배구조, 주주 행동주의, 강력해진 대중 감시, 분기별 수익에 대한 차가운 압력 등 때문이라고 Dimon은 설명한다.

CNN Business 기사

WSJ: Gold Futures Hit Another Record on Geopolitical Tensions, Fed Hopes

금 선물가격, 신기록 경신

- 금 선물가격이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. 계속된 지정학적 긴장, 통화 정책 완화 기대, 중앙은행의 매수,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힘입어 가격이 오르고 있다.
- 뉴욕상품시장에서 6월 금 선물가격은 최근 1.1% 오른 온스당 2천3백76달러 4센트를 기록하고 있다. 지난주에 비해 5.3% 상승했고 올해 들어 13%가 상승했다.
- 금값 상승의 핵심 이유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.

WSJ 기사

[인공지능]

WSJ: Artificial Intelligence’s ‘Insatiable’ Energy Needs Not Sustainable, Arm CEO Says

Arm CEO, “AI의 에너지 충족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”

- 반도체 회사 Arm은 스마트폰 전력 소비 단축 및 배터리 수명 연장으로 명성을 얻은 기업이다. 이제, Arm의 CEO Rene Haas는 AI에도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.
- 그는 화요일 미국과 일본이 양국에 AI 연구 자금으로 1억1천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발표에 앞서, 연설을 진행했다. 영국에 소재한 Arm과 해당 기업의 모기업인 SoftBank Group은 위 프로젝트를 위해 2천5백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.
- Open AI의 Chat GPT와 같은 AI 모델의 “전력을 향한 갈망은 채울 수 없다”고 그는 말했다.
- 더 나은 효율성이 없다면 “10년 후에는, AI 데이터 센터는 미 전력 수요의 20~25%를 소비하게 될 것”이며, “솔직히 말해 해당 수치는 지속 불가능한 것입니다”라고 그는 덧붙였다.

WSJ 기사

[에너지]

CNBC: Oil prices fall after Israel reduces troop presence in Gaza 유가 하락... 가자지구에 이스라엘 병력 감축 후에

-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일부 병력을 철수한 이후, 월요일 미 원유 선물 가격이 하락했다.
- 5월 WTI 계약물은 48센트(0.55%) 하락하여 배럴당 86.43달러를 기록했다. 6월 브렌트유 계약물은 79센트(0.87%) 하락하여 배럴당 90.38달러로 마감했다.
- 이스라엘은 주말 동안 가자지구 남부에서 병력을 철수했다. 이에 지난 10월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래 병력 수준은 최저 수준으로 낮춰졌다. 카이로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다.

CNBC 기사

Bloomberg: Power Bills Will Keep Rising Even After the Fed Tames Inflation 연준이 인플레이션 둔화시켜도 전력 요금 올라간다

- 전력 회사들이 전력망 강화 및 탈탄소 노력에 사용한 비용을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.
- 전기 요금 인플레이션은 광범위한 물가 지표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. 2월 전기 요금은 작년 동월에 비해 3.6% 상승했다. 오히려 물가 중에 계란과 우유 등 필수품 가격은 하락했다고 미 노동통계청을 밝혔다.
- 관련 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달동안 미 주요 대도시 4군데중에 3군데의 전기요금이 상승했다.

- 전력수요는 AI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오는 2028년까지 수요는 작년 소비 수준의 5%가 증가할 예정이다. 이는 작년 전력 회사들이 예측한 규모의 거의 두배에 달한다.

Bloomberg 기사

[기후 변화]

WSJ: Biden Is Spending \$1 Trillion to Fight Climate Change. Voters Don't Care.

바이든의 기후 변화 지원금 1조 달러 지출 불구, 유권자는 냉담

- 바이든 대통령은 어떠한 역대 전임 대통령보다도 기후 변화 문제 역설을 위해 노력해 왔다. 하지만 지금까지 유권자들은 이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.
- 바이든 캠페인과 여러 진보 단체는 냉담한 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 그들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바이든의 성과가 젊은 유권자들의 민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.
- 유권자에게 기후가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전략은 위험하다. 또한, 기후 정책이 바이든을 향한 회의론적인 젊은이들의 심경을 바꿀 수 있을지도 불명확하다.
- 최근 WSJ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고령, 그리고 하마스와의 분쟁 속 이스라엘 지지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젊은 층의 바이든 지지율은 2020년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.
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Bloomberg: Best Buy AI Tools Aim to Make In-Home Services More Efficient

Best Buy, AI 도구 활용해 고객서비스 효율성 높인다

- Best Buy가 속도를 높이고 고객 서비스 지원을 위해 AI를 활용한다. 이는 기술 활용을 통해 운영을 간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.
- 화요일 해당 업체는 오는 달에 고객 서비스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, 생성형 AI로 작동되는 도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. 배달 및 스케줄링과 관련해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상 도우미(Virtual Assistants)와 매장 및 콜센터 직원들의 업무를 간소화시켜 주는 기능 등이 포함됐다.
- Best Buy는 팬데믹 이후 매출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으며, 소비자 전자제품 수요 회복을 통해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. 기업의 임원진들은 매장 및 온라인에서 개인 맞춤 고객 경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.

Bloomberg 기사

WSJ: Google Expands In-House Chip Efforts in Costly AI Battle**Google, 값비싼 AI 경쟁에서 자체 칩 개발 노력 확대**

- 구글이 유튜브 광고 및 빅데이터 분석 등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하드웨어를 출시하는 과정에서, 자체 칩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. 이는 AI 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것.
- Axion이라 명명된 새로운 칩은 컴퓨터 리소싱을 개발하기 위해 구글이 10년 이상 이어 온 노력의 결과물이다. 구글은 2022년 하반기 ChatGPT 출시로 인터넷 분야에서의 지배적 지위에 위협을 받은 이후, 해당 전략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왔다.
- 분석가들은 구글의 칩 제작 노력이 외부 기업 의존도를 낮추면서, 인텔 및 엔비디아와 같은 오랜 파트너와의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.
- 구글 관계자들은 이를 경쟁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. 구글 부사장 Amin Vahdat는 “나는 이것을 파이의 크기를 키우기 위한 기반으로 본다.”고 말했다.

WSJ 기사

[보고서]**한국은행 뉴욕사무소: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(4월)**

PDF 파일

美 기준금리 불확실성 고조...시장서 6월 인하 전망 '반반'**일각선 연내 인하도 의문...JP모건 회장 '美금리 8% 이상' 시나리오 언급**

미국의 인플레이션(물가 상승)이 여전한 가운데 고용시장까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, 시장에서는 6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한때 50% 아래로 내려간 것은 물론 연내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.

8일(현지시간) 시카고상품거래소(CME)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6월 기준금리가 현재 수준인 5.25~5.50%에 머무를 가능성이 한때 50.1%를 기록했다.

이는 한 달 전(26.6%)이나 일주일 전(42.1%)보다 올라간 것이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ccsend.com